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18. 3

맑음은 개인의 청정음,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18 / 3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착한 본성 연꽃처럼 피어나길...
	12	맑고 향기롭게
스님 평안하소서!	14	소리 없는 소리
	18	그 좋았던 佛日庵
길상사 시간여행	23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회주 법정 스님 ①
낮은 음계로	28	법정 스님을 떠나보내고
세계 일주 시작이 반	32	동남아 3국
옛날 사람처럼 먹어라	35	봄, 들판에서 나물 뜯는 행복
공감으로 소통하실래요	38	소통을 방해하는 말 - 2
알립니다	42	2018년 맑고 향기롭게 강연회(일요특강) '인권'에 대해서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4	중앙모임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49	



사진·오상오 「매화」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시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8년 3월 1일 발행 / 통권 277호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형준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엄현경, 주소영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유경은
대구모임 : (053)753-888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부산모임 : (051)898-2672~3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간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착한 본성 연꽃처럼 피어나길...

글·법 정(法 頂)

• 올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은 「마음」 「세상」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어서 잘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을 돌면서 확산시키는 중입니다. 비록 연꽃이 인쇄된 스티커를 나눠주는 것이지만 우리 스스로 이 연꽃의 의미를 새기면서 본다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여유, 차분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신중하게 하는 감춰진 우리네 심성들이 이 연꽃을 보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활짝 피어오를 것

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18일은 부처님오신날입니다. 8만 대장경이 있기는 하지만 만약 부처님이 초파일 법어를 하신다면 어느 경전을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종단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로 미루어 「화합의 법문」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출가수행자의 생활규범을 담고 있는 「사분율」 제43권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여기 기억하고 사랑하고 존중해야 할 여섯 가지 화합하는 법이 있다. 이 법에 의지하여 화합하고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첫째, 같은 계율을 같이 지켜라. 둘째, 의견

을 같이 맞추라. 셋째, 받은 공양을 똑같이 수용하라. 넷째, 한 장소에 같이 모여 살아라. 다섯째, 항상 서로 자비롭게 말하라. 여섯째, 다른 사람의 뜻을 존중하라. 대중이 화합하지 못할 때에는 저마다 행동을 삼가야 한다. 법답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에는 서로 참고 견디며, 자비스런 마음으로 법답고 친절한 일이 행해지도록 힘써야 한다. 물과 젖이 한데 섞이듯이 화합해서 한 스승의 법을 배우면서 안락하게 지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간곡히 당부합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여래의 계율에 따라 머리를 깎고 출가한 수행승이 아닌가. 아무쪼록 잘 참고 견디면서 자비에 의해 밝게 화합해야 한다. 부디 다투지 말라. 이 이상 화합을 깨뜨리지 말라」

청정한 승가란 화합을 이룬 공동체를 가리킨 말입니다.

• 마침 스님께서 화합을 강조하셨습니다만, 얼마 전 조계종 내분이 터져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지난 내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시는지요.

먼저 국민들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처지에서 부끄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보도를 통해 익히 아시다시피 지난번 조계사 폭력사태는 결코 종권 다툼에서 야기된 일이 아닙니다. 총무원장이 3선을 강행하기 위해 폭력배를 끌어들이고 여기에다 공권력이 이들을 비호한 데서 일어난 난동이 아니었습니까.

시긌돈이 정치현금으로 흘러가듯 한 의혹을 사고 있는 상무대 비리 사건이 정치권에서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종단 행정의 책임자가 세속의 권력에 유착되어 그런 의혹을 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타 석가모니의 제자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출가한 중이 무엇

이 두렵고 아쉬워서 추악한 권력에 빌붙어 아부하며 추태를 부려야 합니까. 같은 중으로서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 그따위 비불교적 작태가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 불교계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개혁을 위한 승려대회가 열리고 집행부가 들어설 때마다 개혁이 시도됐습니다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왜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지...

한마디로 말한다면, 개혁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개혁과 정화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말로만 개혁을 들먹였을 뿐 실제적인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출가승단의 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정한 출가정신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개혁의 주체 세력이 그 청정성과 공신력을 상실하고 있어 개혁이 한낱 말잔치로 끝날 수밖에 없었지요. 종교적인

개혁이나 정화는 구호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구체적인 수행과 각 개인의 피나는 참회와 정진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바람직한 개혁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번 개혁 주체들이 내세운 「중단 민주화」 「불교 자주화」라는 개혁 목표를 이룩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로서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개혁 방향을 들 수 없군요. 개혁 회의 쪽에 출가정신이 투철한 스님들이 있어 지금까지의 제도적인 모순과 승단의 당면 과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걸어 봅니다. 이 기회에 개혁회의 측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제도 개혁에 앞서 중단 구성원들의 의식부터가 달라져야 합니다. 문중과 파벌 의식에서 벗어나 한 부처님의 제자라는 공동체 의식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둘째는 개혁의 주체 세력부터가 각자의 삶을 개선하고 개혁하면서 청정승가의 모범이 되어야 그 메아리가 울려 퍼질 수 있습니다. 셋째로 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큰 가닥만 잡아서 고치고 개선해서 그 흐름을 따라가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혁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자비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자비심이 힘인력과 설득력을 동반합니다.

• 「초발심」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 분규 중 뜻있는 불자들이 가운데 나왔는데 스님 뿐만 아니라 속세의 인간들에게도 중요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화엄경에 「초발심이 마침내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천리 길도 처음 내딛는 한걸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상을 사는 일도 그렇고 출가하여 수도하고 교화하는 일도 그렇습니다만 맨 처음 먹은 마

음이 중요합니다. 간절하고 조심스럽고 두렵기까지 한 그 첫 마음에 싹이 트고 잎이 나고 꽃이 피면 마침내 열매를 이룹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모형제와 친구를 등지고 살던 집에서 뛰쳐나와 출가 수행승이 되었는지 시시로 묻고 되돌아본다면 결코 제 길에서 빛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처음 마음을 까맣게 잊어버리면 거기에서 온갖 중생 놀음이 벌어집니다. 절에 들어와 맨 처음으로 배우는 글이 「초발심 자경문」인데, 이 글을 읽을 때마다 풋풋한 초발심 시절이 떠올라 헤이해지려는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게 되는 것이 출가 수행자들의 공통적인 감회일 것입니다. 거기 이런 구절이 실려 있습니다.

「출가하여 청정한 대중에 참여했으면 항상 부드럽고 착한 생각으로 순종할 것이고 나를 높여 뽐내려 하지 말라. 다투는 이가 있으면 양쪽

말을 귀담아듣고 서로 화해시킬 것이지 나쁜 말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만약 벼를 속이고 업신여겨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이와 같은 출가는 조금도 이익이 없느니라」

• 이번 초파일 행사 중 연중행사처럼 해오던 「나라를 위한 기원법회」가 폐지되고 초파일 연등을 매달 때도 대통령 삼부요인에 이어 시주금 액수 순으로 크기와 순서가 정해지던 것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스님의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불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아 듣기만 해도 흐뭇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을 기리는 뜻에서 켜는 등에 세속적인 권력과 부를 연관시킨다면 연등이 옷을 일 아납니까. 그리고 등에 얼마짜리의 값이 붙여진다는 것도 세속적인 상업주의 냄새가 나서 역겹고 창피합니다. 부처님오신

날만이라도 부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작년부터 재가불자들의 모임인 「우리는 선우」에서 착하고 참되게 사는 이들이 이 사회에 등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등 달아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 달아주는 등입니다. 이웃의 앞길을 축복하는 「축복의 등」을 비롯해서 부모의 은혜를 기리는 「감사의 등」 사랑하는 이를 위한 「애정의 등」 이웃을 서운하게 했던 일을 뉘우치는 뜻에서 「용서의 등」이 있고, 이 밖에도 「관심의 등」 「쾌유의 등」 「인연의 등」 「통일의 등」이 장충단 둘레에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모아진 수익금은 장애인 복지 기금으로 쓰입니다. 이런 운동이 널리 확산되었으면 합니다.

• 초파일에 연등을 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것이 등불입니다. 「중생의 어두운 무명 번뇌를 소멸케 하여지이다」하는 염원에서 등불을 켜지요. 「가난한 여인의 등불(빈녀의 일등)」이라는 고사가 불교 경전에 전해 내려옵니다. 한 여인이 부처님 계신 곳에 등불을 밝혀 드리고 싶은데 기름 살 돈이 없어 자신의 머리카락을 팔아서 기름을 구해다 등불을 켜니다. 그 나라의 왕이나 부자들이 켜 등불은 거센 바람에 모두 꺼지고 마는데 이 여인의 등불만은 바람 앞에서도 꺼지지 않고 날이 밝도록 환히 밝혀져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시자가 그 등불을 끄려고 하지만 꺼지지 않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맑은 신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켜 등불은 어떤 것으로도 끌 수 없다. 지혜와 자비의 등불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불우한 이웃에게 공양을 올리는 일이 곧 부처님을 다시 오시게 하는 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 일반인들의 눈에 불교는 만인을 제도하는 기능보다는 해탈을 위한 자기 수행의 종교로 인식돼 있습니다. 불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종교마다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 불교는 고려시대부터 깨달음의 수행인 선을 중요시 해왔고, 조선시대에 와서는 혹독한 박해 때문에 사회적 기능과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불교는 구도의 종교이지 포교의 종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치열한 구도를 통한 그 덕화가 포교에 이어질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사회적인 봉사 쪽에는 적극적일 수가 없지요. 그러나 모든 종교가 그랬듯이 불교 자체도 한편으로 지혜를 닦고 한편으로는 이웃을 구제해야 한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여기저기서 젊은 불자들 사이에 대사회적 역할

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져 희망적입니다.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세상에 도달할 때 수도의 의미도 있게 됩니다. 세상과 연결되지 않고 개인의 율타리에 갇힌다면 그건 종교도 불교도 아니지요. 「중생이 앓기 때문에 나도 앓는다」는 대승보살정신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우리 시대와 사회임을 모든 불자들이 함께 명심했으면 합니다.

•「버리고 떠나기」를 실천하면서 강원도 산골에 정착하신지도 벌써 몇 해가 지난 것 같습니다. 스님 수행에 많은 성취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만...

강원도 오두막으로 옮겨온 후 벌써 세 번째 봄을 맞았습니다. 그전부터 느끼고 생각해 온 것인데 진짜 종교적인 삶은 어떤 스승의 가르침이나 교리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어떤 조직에도 예속되지 않고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그 자신의

삶을 살며 순간마다 진리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교적인 인간은 신이나 어떤 대상을 습관적으로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신인지 거듭 물으면서 스스로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갖 두려움으로부터, 자기중심주의로부터, 이기심과 야심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요즘 제 신변의 관심사는 보다 단순하고 간소하게 사는 일입니다. 단순하고 간소한데서 나의 본질적인 삶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곁들여서 이 기회에 동아일보 독자들께 양해를 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난번 종단의 불미스러운 폭력사태를 두고 참회하고 근신하는 뜻에서 그동안 써 온 「산에는 꽃이 피네」의 글을 한동안 쉬려고 합니다. 이번 여름 안거를 계기로 침묵 속에서 제 자신을 더욱 갈고닦은 후에 다시 만나려고 합니다. 1년

남짓 오죽잖은 제 글을 읽고 격려해 의 말씀을 전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주신 독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시작하십시다.

여기에 옮긴 글은 1994년 5월 18일, 동아일보 임연철 문화부장과 법정 스님간의 인터뷰를 수록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연꽃처럼 맑고 향기로운 법정 스님의 입적 8주기를 맞아 스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음악회와 추모 법회를 봉행합니다.

스님이 남기신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정 스님을 그리는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랴’

3월 11일(일) / 오후 1시 30분

법정 스님 입적 8주기 추모법회

3월 13일(화) / 오전 11시

장소 · 「맑고 향기롭게」근본도량 길상사 설법전

맑고 향기롭게

글 • 이해인(수녀)

세상에 살면서도
 산사(山寺)의 시냇물처럼
 고요하게 물이 되어 흐르는
 맑은 사람들

만나는 이들의 가슴에
 둥근 연꽃 한 송이로 피어나는
 향기로운 사람들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어가는
 아름다운 모임이 여기 있네요

외로운 어르신
 불편한 장애우

어려운 청소년
 훼손된 산과 숲

누구든지 어디든지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부처님의 미소를 안고 달려가
 살 길을 열어주는
 따뜻한 모임이 여기 있네요

늘 바쁘다는 핑계로
 머뭇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꾸준히 실천해 온
 소박한 사랑
 나눔의 지혜
 깊이 감사드려요

그 푸른 정성은

인내의 세월 속에
 큰 나무가 되겠지요?

더불어 사는 법을
 함께 하는 사랑을
 우리도 날마다 새롭게 배울 거예요.

그래요
 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맑고 향기로운
 사랑이 되신
 여러분 모두를

이제 자비의 등불 받쳐들고
 더 멀리 가십시오
 더 넓게 보십시오

2002. 8.
 부산 성베네딕도 수녀원에서

이해인 수녀님이 본모임 창립 10돌을 축하하며 보내주셨던 시를 다시 수록합니다.



1996년 3월 28일 맑고 향기롭게 부산 강연 후 성베네딕도 수녀원에서

소리 없는 소리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도 만족할 줄 모른다.

이것이 현대인의 공통된 병이다. 그래서 늘 목이 마른 상태이다.

겉으로는 번쩍거리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정신적으로는 초라하고 궁핍하다.

크고 많은 것만을 원하기 때문에 작은 것과 적은 것에서 오는 아름다움과 살뜰함과 사랑스러움과 고마움을 잃어버렸다.

-산에는 꽃이 피네

아름다운 마무리는 삶에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다.

내가 걸어온 길 말고는 나에게 다른 길이 없었음을 깨닫고 그 길이 나

를 성장시켜 주었음을 믿는 것이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과 모든 과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에게 성장의 기회를 준 삶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아름다운 마무리다.

-아름다운 마무리

인간은 강물처럼 흐른다.

날마다 똑같은 사람일 수 없다.

그러니 함부로 사람을 심판할 수 없다.

내가 판단을 내렸을 때, 그는 이미 판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말과 침묵

인간은 누구나 어디에도 기대서는 안 된다.

오로지 자신의 등뼈에 의지해야 한다.

자기 자신에, 진리에 의지해야 한다.

자신의 등뼈 외에는 어느 것에도 기대지 않는 안정된 마음이야말로 본래의 자기이다.

-산에는 꽃이 피네

적게 가질수록 더욱 사랑할 수 있다.

어느 날엔가는 적게 가진 그것마저도 다 버리고 갈 우리 처지 아닌가.

-버리고 떠나기

물소리 바람소리에 귀기울여보라.

그것은 우주의 맥박이고 세월이 흘러가는 소리이고 우리가 살 만큼 살다가 갈 곳이 어디인가를 소리 없는 소리로 깨우쳐줄 것이다.

이끼 낀 기와지붕 위로 열린 푸른 하늘도 한번쯤 쳐다보라.

산마루에 걸린 구름, 숲속에 서린

안개에 눈을 쥐보라.

그리고 시냇가에 가서 맑게 흐르는 시냇물에 발을 담가보라.

차고 부드러운 그 흐름을 통해 더덕더덕 끼어 있는 먼지와 번뇌의 망상도 함께 말끔히 씻겨질 것이다.

물소리에 귀를 모을 일이다.

-물소리 바람소리

어떤 사물을 가까이하면 은연중에 그 사물을 닮아간다.

꽃을 가까이하면 꽃 같은 인생이 된다.

이것이 신비로운 우주의 조화다.

-홀로 사는 즐거움

바닷가의 조약돌을 그토록 둥글고 예쁘게 만드는 것은 무쇠로 된 정이 아니라, 부드럽게 쓰다듬는 물결인 것을.

-영혼의 모음(母音)

인간의 계절은 어디서 오는 걸까?

그것은 어디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련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극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

새날을 비상(飛翔)하는 의지의 날개가 꺾이지 않는 한 좌절이란 있을 수 없다.

어제를 던고 오늘은 일어서야 한다.

-영혼의 모음(母音)

기도는 어떤 소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 결과를 바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불순한 거래요, 계약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로지 간절한 마음으로 꾸준히 지속해야 합니다.

기도 그 자체에서 삶의 고마움과 기쁨이 우리나라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열릴 때가 옵니다.

마음이 열리면 모든 일은 마음먹은 대로 됩니다.

-버리고 떠나기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이 쓰이게 된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는 것.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뜻이다.

-무소유

말이 많으면 쓸 말이 별로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경험이다.

하루하루 나 자신의 입에서 토해 지는 말을 홀로 있는 시간에 달아 보면 대부분 하잘것없는 소음이다.

사람이 해야 할 말이란 꼭 필요한 말이거나 '참말'이어야 할 텐데 불필요한 말과 거짓말이 태반인 것을 보면 우울하다.

시시한 말을 하고 나면 내 안에 있

는 빛이 조금씩 새어 나가는 것 같아 말끝이 늘 허전해진다.

-무소유

이 세상에서 원한은 원한에 의해서 결코 풀리지 않는다.

그 원한을 버릴 때만 풀리나니, 이것은 변치 않을 영원한 진리다.

-인연 이야기

일상적인 우리들의 정신 상태는 너무나 복잡한 세상살이에 얽히고 설켜 마치 흙탕물의 소용돌이와 같다.

우리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도 이런 흙탕물 때문이다.

생각을 돌이켜 안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는 명상은 이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작업이다.

흙탕물이 가라앉으면 들레의 사물이 환히 비친다. 본래 청정한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오두막 편지

번뇌 밖에 따로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 밖 어딘가에 천국이 있다고 우리는 흔히 믿고 있지만,

바로 이 현실 세계에서 천국을 이룰 수 있지 현실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일기일회

조금은 외로울지라도 무소의 뽕처럼 혼자서 가라.

외로움은 자기 자신을 맑히는 일이기도 하다.

-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 이제는 남의 책은 덮어두고 자기 자신의 책을 읽을 차례다.

사람마다 한 권의 경전이 있는데 그것은 종이나 활자로 된 게 아니다.

펼쳐보아도 한 글자 없지만 항상 환한 빛을 발하고 있다.

- 말과 침묵

그 좋았던 佛日庵

글 • 김기철(도예가)

지금 떠올려 봐도 바로 어제 일처럼 느껴지는 스님과의 작별의 순간은 스님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만하다. 우리 식구들이 불일암을 찾아 하루 이틀 개개다가 떠나올 때 한번은 대숲을 지나는데 까지 배웅을 하시고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우뚝 서서 우리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시는 것이었다. 나는 몇 번이고 뒤돌아보면서 스님께서 되돌아가시기를 바랐지만 그 날은 뜻밖에도 당신의 혈육이 아주 떠나버리거나 하는 것처럼 요지부동이었다. 나는 지금도 석별의 정이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가슴속 깊이 깊이 박혀 있다가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도 가슴을 서늘케 하고, 아

니 훈훈하게 덮히고 있다는 사실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이다.

대체로 우리 가족은 일 년에 두 번 정도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계기로 남들이 바다나 외국으로 떠날 때 불일암을 찾아갔다. 마치 어린 시절 방학 때 고향을 찾아 한 달씩 있다가 돌아오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그 당시 먼 시골 고향 큰 집에 간다는 것은 이국만리 새로운 세상을 찾는 것처럼 설레고 기다려졌는데 막상 가서 한 달을 뛰놀다가 되돌아올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싫었다. 떠나올 때 초라하게 늙고 꼬부라진 큰아버지가 신작로까지 나와 떠나는 버스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손

을 흔드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고개를 빼고 내다볼라치면 공연히 가슴이 아리고 울적해져 어찌할 바를 몰랐다. 우리의 불일암 방문은 이와 비슷했다. 몇 날 며칠을 손꼽아 기다리다 마침내 그 날이 오면 널뛰듯이 좋았다.

법정 스님이 계신 불일암을 서울에서 출발해서 가는 내내 상상하며 기분이 좋았다. 그곳은 송광사 입구에서 계곡물을 건너 실타래처럼 이어져 있는 외길이 그렇게 신선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그리 멀지 않은 오리 정도의 산길이지만 이름 있는 명산을 등산하는 것처럼 다양한 산길이 이어져 세속에 찌든 잡다한 먼지를 맑고 향기로운 공기와 물, 그리고 수목과 풀들이 말끔히 씻겨주는지 심신이 상쾌하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이었다. 그곳 중간쯤에 습지가 나오는데 비단 실 같은 풀잎들이 잔잔히 깔려 있고 그 사이사이 귀엽기 이를 데 없는 붓꽃이 참으로 해맑

고 고운 빛깔로 우리를 맞이해 주는 것이었다. 때 묻지 않은 자연 속에서 맑은 물을 머금고 자라난 생명체들, 진정 청정함과 지상낙원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비록 몇 발자국 안 되는 작은 공간이지만 적어도 나에게서는 광대무변한 초원 같은 느낌이 들었다.

마침내 대숲을 헤치듯이 지나 불일암이 자리한 환한 터전에 오르면 마치 에베레스트 정상에나 오른 듯한 환희와 뿌듯함이 깊은 숨을 내쉬게 했다. 고즈넉한 불일암 경내! 그곳을 감싸고 있는 하늘과 뒷동산 같은 편안한 숲, 이 모두가 고귀하고 완벽하게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너무나 질서 정연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할까? 한마디로 조금도 변들대지 않고 다소곳이 의연한 제 모습을 띠고 있는 분위기는 자연스레 경건한 마음을 일게 했다. 아무리 경관이 좋고 양

지바른 터전에 궁전 같은 집을 짓고 호화판으로 차려놓고 있다 치더라도 그 속에 사는 인간이 못됐으면 그 풍기는 느낌은 좋지 않은 법이다. 반대로 아주 열악한 환경에 초라하게 오두막을 꾸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인품이 훌륭하면 조금도 누추하게 보이지 않는 것은 거처와 인품의 관계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불일암의 경우야말로 그 별천지 같은 청정한 분위기와 스님의 완벽하리만큼 철저한 수행 생활이 상승해서 나 같은 천방지축의 뻔뻔한 인간도 고개를 못 들고 '스님 계신가요? 저희 왔는데요.'라고 모깃소리만큼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조심스레 입을 떼는 것이었다. 그러면 닫혀있던 장지문이 사르르 열리며 환하게 미소 띤 스님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다. 늘 그랬지만 그때만큼은 스님의 얼굴이 한층 더 빛나는 것 같았다. 비록 소박한 승복이지만 그 옷에선 멋이 풍겼

다. 언제 봐도 털끝만큼도 후줄근한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다. 깔끔하게 다려 입은 베 장삼은 스치면 베일 것처럼 날이 서 있었다. 그것은 그분의 청정하고 절도 있는 일상을 드러내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았다.

그 어떤 것보다도 불일암의 정량은 놀라웠다. 인적 미답의 대숲 속에 자리한 것 같은 조촐한 목조 공간은 정갈함 그 자체였다. 티끌만큼도 오물이 고여 있다고 생각되는 장소가 아니었다. 앞을 내다보면 신선하기 이를 데 없는 대숲과 이끼 덮인 초지가 한눈에 들어오고 비단결 같은 대나무 잎의 사각땀, 그리고 폐부를 시원하게 하는 숲 향기가 밀려드는 것이었다. 뒷간이란 어쩔 수 없이 배설물을 받아내는 곳이라 사후 처리를 위해 낙엽과 재를 담아놓고 그것으로 덮게 돼 있으니 시각적으로나 후각적으로 조금도 역겹지 않은 것이었다. 그것은 놀라운 문화였다. 참으로

이상적인 자연 순환 법칙에 따라 자연으로 되돌리는 방법이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제 똥 삼 년만 안 먹으면 다 굶어 죽는 계'라고 했던 이치를 체험했던 것이다.

법정 스님의 정신과 삶의 면모는 한 평 정도의 작은 다실에 들어가 보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다. 평소 무소유와 스님식의 자유로운 삶이 이 작은 공간에서 체득되었다는 것은 장님 코끼리 더듬는 격인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레 그 단면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사방 벽은 뭐하나 걸리지 않고 벽면 전체가 텅 비어있다. 또 어디를 봐도 군더더기 없이 단순 소박하다. 어떻게 그토록 간단명료하게 텅 빈 세계를, 무(無)의 실상을 내보여주는지 놀라운 노릇이었다. 한 번은 숨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하고 고요한 큰 방에서 아주 특이한 체험을 할 기회가 있었다. 그 놀이(?)는 적어도 그 공간에서는 현실 세계를 떠난 절제

되고 경건한 의식이라 해도 좋았다. 환했던 방안은 캄캄해지고 백자 연잎 말차 다원에 불을 붙인 티라이트를 넣으니 금세 환상의 세계가 열리는 듯했다. 그리곤 곧이어 은은한 명상 음악이 흘러나오니 일렁이는 촛불은 그 선율에 맞춰 살아 움직이는 우주의 날개처럼 유장한 자연의 본모습으로 벽면에서 서서히 울동하기 시작했다. 음악의 선율과 연잎 다원의 전을 빠져나온 광명의 세계가 벽면 가득 펼쳐지는 장면은 신비스럽기까지 했다. 스님과 우리들은 숨이 멎도록 환희 삼매에 숨 쉬는 것마저 있고 있는 것 같았다.

생각해보면 우리 어렸을 때 등잔불을 배경으로 두 손바닥을 겹쳐 몇 가지 짐승 모양을 만들어 벽에 비춰보면서 신기하고 재미있어 지칠 줄 모르고 반복했던 기억이 떠오르는 것이다. 이것은 그 시절의 지극히 단순한 그림자놀이였다. 그렇

지만 스님께서 연출한 이 퍼포먼스(performance)는 기발하다면 정말 기발한 것이었다. 우리는 이런 뜻밖의 놀이 아닌 의식을 오묘하게 치른 셈이었다. 반면 불일암에서의 순간 순간은 허리가 꼬부라지게 폭소를 터뜨리게도 했다. 스님은 숨 실 틈 없이 엄격하기만 하고 냉철한 수도자는 아니었다. 지극히 인간적인 면모에 더 큰 위안을 느꼈는지 모른다. 진정 그분의 재치, 그때그때 절묘하게 경직된 분위기를 확 풀어주는 말장

난, 나는 그 점에서도 천재성을 발휘하신다고 굳게 믿는다. 그것은 완벽함 속의 빈틈이다. 끈기만 하면 꺾인다. 휘청 휘는 그 묘미, 우주 질서의 한 치 어긋남 없는 운항 가운데도 기상천외의 이변이 있는 것처럼 그 맑은 하늘, 신선한 산천, 결코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겸손하고 소박한 인공의 구조물들, 거기에 청정 그 자체의 스님의 일상까지 더해 조화를 이루고 있던 맑고 향기로운 그 시절의 불일암이 그리워지는 지금이다.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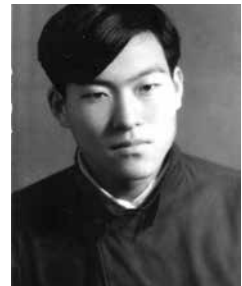
- ※ (사)맑고 향기롭게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활동 소식을 비롯하여 법정 스님의 글과 삶의 지혜가 담긴 알차고 유익한 월간 '맑고 향기롭게'을 정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www.clean94.or.kr)나 사무국으로 방문하셔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 후원해 주신 모든 기부자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 맑고 향기롭게 활동 소식과 법정 스님 글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APP)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817-01-0253-129 (사)맑고 향기롭게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회주 법정 스님 ①

글 • 홍정근

법정 스님(比丘 法頂 / 속명 박재철(朴在喆) / 1932.10.8(음) ~ 2010.1.26(음))은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우수영에서 태어났다. 우수영은 정유재란 때인 1597년 일본 수군의 133척의 배를 이끌고 조선에 침입했을 때, 이순신 장군이 명량의 거센 조류를 이용하여 대승(大勝)을 이룬 곳이기도 하다. 우수영 초등학교를 졸업(25회)한 뒤, 목포로 유학하여 목포상업중학교(6년제/現 목상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이후 목포상과대학(전남대 상과대, 1952년 광주농과대학, 대성대학, 목포상과대학, 광주의과대학 등 5개 대학을 통합) 3학년 1학기를 수료한 후, 한 핏줄 한 형제끼리 총부리를 마주대고 미처



출가전(대학생 박재철)

날뛰던 동족상잔인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학창 시절에 밤을 새워가면서 인간 존재에 대한 물음 앞에 마주서게 되며, 진리의 길을 찾아 나서게 된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힘들게 수학(修學)하던 당시, 집을 나온 그때의 심경을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 되고 싶은 마음뿐이었고, 휴

전이 되어 포로 송환이 있을 때 남쪽도 북쪽도 마다하고 제삼국을 선택하여 한반도를 떠나간 사람들의 심경이었다.라고 회고한 바 있다.

1955년 말, 입산 출가의 결심으로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로 가던 중, 3.1운동 민족대표였던 백용성(1864~1940) 스님이 거주하였던 서울 종로구 봉익동 대각사에 잠시 머무르게 되는데, 그때 만난 월정사 한 스님으로부터 폭설로 인해 교통이 두절되어 갈 수 없으니, 안국동 선학원에 근세 큰 스승이신 효봉 선사(1864~1940)가 머물고 있음을 소개받는다. 법정 스님은 학창 시절 학비를 벌기 위해 목포 정혜원 포교당에서 잠시 일할 때, 일초 스님에게 '동쪽에는 동산, 남쪽에는 효봉'이라며 효봉 선사에 대해 익히 전해 들었기에, 효봉 선사를 친견하고 그 자리에서 머리를 깎고 수행자로서 첫발을 단게 된다.

1956년 초, 경남 통영 미래사(1954년 구산 스님이 효봉 선사를 모시기 위해 지은 두어 칸의 토굴)로 내려가 우물가에 흘린 국숫발도 맛있게 주워 먹으며 힘들고 배고픈 행자 시절을 보낸 후, 여름 안거가 끝난 7월 보름 해제 날에 승보종찰 송광사에서 효봉 선사를 은사로 사미계를 받는다. 그리고 지리산 쌍계사 탐전으로 옮겨 효봉 선사를 모시고, 엄격하지만 착실하고 빈틈없는 '뾰족 시절'을 보내면서 수행자의 기본을 다진다.

* 법정 스님 출가 연도가 1954년으로 기록된 바 있으나, 법정 스님의 편지글을 모아 발간한 '마음하는 아우야'의 자료에 따르면, 1955년 말 출가를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집으로 보낸 편지가 있고, 1956년 법정(法頂)이란 불명을 받은 편지 등의 자료가 있다.

1957년 4월부터 경남 가야산 해인사 선원에서 좌선을 익히고, 불교 경전을 대하면서, 종교의 본질을 망각한 채 전통과 타성에 젖어버린 관념적이고 형식적인 한국 불교에 적잖은 갈등과 회의를 지니고 있던 중, 의

식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아침저녁으로 장경각(藏經閣)에서 따로 예불을 드리고, 좌선하던 중 방선(放禪) 시간에 법당 둘레를 거닐고 있는데, 어느 시골 아주머니가 장경각에서 내려오면서 불쑥 팔만대장경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다. 스님은 방금 보고 내려오지 않았느냐고 하자, "아, 그 빨래판 같은 것이요?"라고 되묻는다. 이때 스님은 '빨래판 같은 것'이라는 말이 가슴에 화살처럼 꽂히며,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자비의 가

르침이라 할지라도 알아볼 수 없는 글자로 남아 있는 한 그것은 한낱 빨래판 같은 것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이때 받은 충격으로 그해 여름 안거를 마치고 강원으로 내려가 경전을 배우고 익히는데, 국보요, 법보라고 해서 귀하게 모시는 대장경편을 어떻게 하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쉬운 말과 글로 옮겨 전할 것인가, 이것이 법정 스님에게 주어진 하나의 화두가 되었다.

1959년 2월, 동안거 해제를 마치고 신라 천년의 꿈이 어린 서라벌을 찾아 석굴암 부처님을 친견하고, 동해를 따라 만행(漫行)을 한 후 3월 통도사에서 자운율사를 계사로 비구계(比丘戒)를 수계하고, 다시 가야산 해인사 사문(沙門)으로 되돌아가, 1959년 4월 해인사 전문 강원에서 명봉화상을 강주로 대교과를 졸업하게 된다.



1959년 경주 불국사에서

1960년 3월, 운허 스님의 부름을 받아 양산 통도사 원통방(圓通房)에서 <불교사전> 편찬 일을 거들었고, 그 해 4·19혁명을 맞이하며 '종교의 역사'의식에 대해서 골똥하게 생각하면서 세상일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 1961년 5월 서울에서 <불교사전> 출판을 끝낸 후, 다시 해인사로 내려와 타고난 문재(文才)를 발휘하여 한문 경전을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뜻을 세운다. 1961년부터 해인사 소소산방(笑笑山房, 작은 방이었지만 웃는 마음으로 지낸다는 뜻)에서 <불교성전> 원고를 손질하고, 서산 대사 휴정 스님의 <선가귀감>을 선학원판과 원적사판(圓寂寺版), 송광사 언해본(諺解本)을 참고로 번역에 착수하여 1962년 첫 출간하게 된다.

번역판 '해제'에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해인사 퇴설선원 안거 중에 어느 노스님에게서 선가귀감(禪家龜鑑) 목판본을 빌려서 보았는데 구구절절 살아있는 말씀이어서 밤

을 새워 베끼기 시작했다고 한다. 법정 스님의 이 같은 행동을 지켜본 노스님이 "그 책이 그렇게 좋으면 스님이 가지시오"라고 하면서 선뜻 넘겨주어, 법정 스님은 도반에게 널리 읽혔으면 하는 의도로 번역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1962년 이후 조계종의 주도로 역경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해인사에 소장된 총 6,800여 권의 고려대장경을 국역하여 한글 대장경으로 간행하는 민족 문화 복원 사업이 추진되었고, 1964년 당시 종정이었던 효봉 선사는 운허 스님을 동국역경원장으로 위촉하게 되자, 운허 스님의 간곡한 권유로 1967년부터 역경위원, 편찬부장으로 활동하며 <법화경>, <숫타니파아타> 등 경전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1969년 서울 봉은사 판전 아래 별당으로 거처를 옮긴 스님은 '다래헌(茶來軒)'으로 이름

을 지어 편역을 달고, 다인(茶人)들과 교류하며, 차 맛을 알아가게 된다. 그리고 1971년 3월 월간 문예지 <현대문학>에 처음으로 수필 '무소유'를 발표하고, 1972년 동국대 서경수 교수 등과 함께 <우리말 불교 성전>을 출간하고, 첫 수필집 『영혼의 모음』을 발간한다.

1973년 대한불교조계종 기관지인 대한불교(大韓佛敎) (1980년 11월 언론 통폐합 때 폐간되었다)가 그해 12월 21일 '불교신문'으로 속간) 신문사 논설위원, 주필로 활동하면서, 군사 독재의 격동기에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민주화 운동에 동참하게 된다. 출판이 아직 대중적이지 못한 시대에 엮기에, 대한불교는 교리, 소식, 문예 등 다양한 글을 싣는 순간지(旬間誌)로써 다른 잡지를 압도하고도 남았고, 법정, 운학 등 젊은 승려들이 불교 역사, 부처님 생애 등을 소개하였다. 법정 스님은 함석헌이 주도했던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으로도 합세하

였고, 함석헌, 장준하 등과 함께 민주수호국민협의회를 결성하여 유신 철폐 개헌 서명운동에 참여하지만, 어용화된 불교종단에서는 법정 스님을 보군자처럼 취급하게 된다. 기관원이 절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감시하고 걸핏하면 연행되어 괴롭힘을 당하자, 적개심과 증오심을 품게 되었다고 한다. 스님은 이때 제도권 불교 교단에 환멸을 느끼고, 제도권 교단에는 발을 붙이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불일이 있어 총무원 근처를 지나가야 할 때도 주변을 둘러서 지나갈 정도였다고 한다. (계속)



1973년 민주수호국민협의회에 참석중인 법정 스님

법정 스님을 떠나보내고

글 * 전 민(작가)

스님이 먼 길을 가셨다. 병세가 위중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입적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멍멍하게 있다가 무작정 길상사로 갔다.

비어져 나오는 눈물을 삼키며 스님의 마지막 처소에 다다랐다. 연꽃 무늬 흰색 누비옷을 입은 신도회 간부가 바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길을 막고 무조건 도와드릴 일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리잖아도 일손이 모자라는 참이라 했다.

‘묵언’이라 적힌 스무남은 종잇장에 우선 코팅 비닐을 씌웠다. 평소 스님이 강조하시던 낱말이었기에 더욱 정성스럽게 매만졌다. 가열된 기계에서 단정히 빠져나오는 A4 비닐 낱장이

내 마음에도 차곡차곡 쌓였다. 그 일을 하고 나서 다시 무슨 일이든 시켜 달라고 조르듯이 말했다. 그것이 스님을 오랫동안 흠모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라는, 내 나름의 표식이었다. 저녁이 되어가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밤바람이 잤다.

이튿날 아침 일찍 다시 일주문으로 들어섰다. 검은 옷차림을 한 거사님들이 입을 굳게 다문 채 있는 듯 없는 듯, 구석구석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나의 소임은 분향소를 마련한 설법전 끄트머리 계단 위에서 ‘묵언’ 표지판을 들고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었다. 분향을 하려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말없이도 통하는 슬픔을 안고 침묵으로

서 스님의 은덕을 기렸다.

스님의 법구가 극락전 앞으로 나올 시간이었다. 낮게 드리운 공기를 가르고 난데없이 돌풍이 몰아쳤다. 기이한 현상이었다. 도리 없이 스님과 작별해야 하는 도량신의 오열이었을까. 이상한 일은 또 있었다. 스님이 나오시기 한참 전부터 설법전 앞 등치 큰 나뭇가지에 앉아 미동도 없이 극락전 뜰을 내려다보고 있는 새였다. 몸집은 비둘기만 한데 비둘기는 아니었다. 털빛이 은회색이었다. 새는 거세게 몰아치는 바람에도 까딱 없이 가만히 한군데를 응시하고 있었다. 순간 나는 움찔했다. 스님의 혼령이 새가 되어 그렇듯 지난 생을 점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였다. 그런 생각이 들자 환청처럼 스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가는 길이 외롭진 않군!’

수많은 사람들 가슴에 무소유의 가치를 심고 스님이 길상사를 떠난 날 밤, 남편이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벌떡 일어나 앉았다. 추모 특집으로 엮은 MBC 스페셜에 아주 쉽게 스님을 배움하는 나의 모습이 화면 가득 비춰지고 있었던 것이다. 삶의 고비마다 바른 정신으로 살게끔 이끌었던 큰 스승을 잃고 애통해하는 마음이 하늘에 닿은 것일까. 나도 모르게 찍힌 영상, 그렇게나마 스님 가시는 길에 함께할 수 있어서 다행스러웠다.

서른 막바지에 나는 심한 나이 치레를 했다. 사십이란 숫자가 주는 중압감 때문인지 무슨 일을 해도 즐겁지가 않았다. 머리가 녹진했다. 마흔 살 이후는 생의 본문이 아닌 부록에 해당된다는 생각이 짙었다. 높이었다. 그 무렵 책을 가까이했는데 자연주의 철학자 같은 스님의 맑고 깊은 글들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

“이제 내 귀는 대숲을 스쳐오는 바람 소리 속에서, 맑게 흐르는 산골의 시냇물에서, 혹은 숲에서 우짖는

새소리에서, 비발디나 바하의 가락보다 더 그윽한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여름휴가 일정이 잡히자 나는 묵은 숙제를 하듯 ‘불일암’행을 단행했다.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거리낌 없이 수행의 내공을 쌓는 스님을 보면 털거덕대는 마음이 잡혀질 것 같았다.

짜사랑하는 사람의 집을 수소문하여 살며시 가보는 기분이었다. 조심스레 산길을 걸어 올라갔다. 간간히 빗방울이 들었다. 초등생 아이들과 남편은 피곤한데 꼭 거길 가야만 되겠느냐고 볼멘소리를 했다. 길을 잘못 들어 암자에 다다랐을 때는 해가 기울고 있었다. 마당 앞에 있는 파초 잎 위로 가는비가 내려앉고 있었다. 비는 작은 암자를 푸르고 부드럽게 감쌌다.

스님은 계시지 않았다. 그때는 이미 강원도 오두막으로 거처를 옮긴 뒤였다. 깡마른 젊은 스님 한 분이

아래채 쪽마루에서 가부좌를 틀고 정진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 비구(나중에 알고 보니 덕현 스님)를 사이에 두고 어색한 포즈로 사진을 찍었다. 스님이 국수 공양을 하고 가라고 일렀지만 위채 편액이 걸린 댓돌에 서서 한 번 더 셔터를 누르고는 서둘러 산을 내려왔다.

유머 넘치는 스님의 화법대로 ‘현품대조’는 없었지만 인연은 깊어졌다. 종교에 대한 관념을 깬 스님의 자유로운 정신에 매료되어 글뿐 아니라 신문에 나오는 인물기사까지 모조리 스크랩하여 보관하는 정성을 기울였다.

언젠가 누굴 지극히 미워한 적이 있다. 미워하는 마음은 곧 고통이었다. 날마다 불구덩이에서 허우적댔다. 그 무렵 스님이 꿈결에 나타나 말씀하셨다.

“활활 털어버려라. 그래야 큰 것을 얻는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 즐거운 일보

다 괴로운 일이 더 많았던 나는 삼각산 언저리로 이사를 하고서 틈만 나면 길상사를 찾았다. 그곳에 가면 마음이 편했다. 후원 담장에 노란 꽃불을 밝힌 영춘화의 화사함이 좋았고, 마당귀 자그마한 아치문을 타고 오른 적황색 능소화의 요요함이 좋았다. 극락전 앞뜰에 무더기로 피어나, 때때로 아름다움이란 이런 거라고 향기로 말을 걸던 연보랏빛 개미취의 자태가 무진 좋았다. 엷은 고독이 번지는 시월, 개울가 언덕에 있는 늙은 소나무에 기대어 바람에 수수수 떨어지는 갈참나무 잎을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이야 어찌 돌아가든 마음이 그지없이 평화로웠다. 염불보다 잿밥이라고 눈치 받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나물밥이 있어서 더 자주 갖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곳 향기에 빠져들었다. 당산나무 그늘 아래 둘러앉은 아이들처럼 정답게 어깨동무하고 세상을 밝히는 맑고 향기로운 사람들. 그들 곁에 있으면 나에게도 향기가 스미는 것 같았다. 종교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바뀌었다.

석 달간의 불경 공부를 마치고 회향식이 있던 날 스님께서 지어주신 나의 법명은 법등명(法燈明)이다.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뜻이 담긴 그 이름이 나는 마음에 든다. 사는 일이 힘겹고 우울하다가도 소리 내어 등명, 등명, 등명을 읊조리다 보면 어느새 환한 불이 목전에 켜지고는 한다.

오랜 기간 스님을 경외하며 살았어도 나는 스님 앞에 작은 촛불 하나도 되지 못했다. 스님은 횃불보다도 더 큰 광휘로 나를 밝혀주고 가셨다.

전민 · 충남 당진에서 태어나 경영학을 공부했다. 「수필과 비평」과 「에세이문학」으로 등단했고, 맥심문학회(현, 동서문학)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에세이문학 편집위원, 한국수필문학진흥회 이사, 한국문인협회, 북촌시사, 담쟁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동남아 3국

글 • 강인철(작가)



이른 아침마다 줄지어 지나가는 탁발 스님을 본다. '탁발'이란 스님들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음식 등을 공양 받는 의식으로 아침 6시쯤이면 공양 발우를 든 스님들의 행렬이 시작된다. 마을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집에서 준비한 밥, 돈, 꽃, 향, 과일, 과자 등 공양물을 정성껏 발우에 넣어 준다. 스님들 또한 염불도 해주고 발우 속에 들어온 과자나

음식을 다시 꺼내 가난한 아이들의 빈 바구니에 도로 넣어 주기도 한다. 꼭 종교의식이 아니더라도 자연의 순환 이치에 순응하고 있는 모습들이 신비로움마저 느끼게 해준다. 아침을 여는 일상의 시작이다.

인도차이나는 프랑스령 식민지였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3국을 통틀어 말한다. 이들 국가는 메콩강을 끼고 유사한 삶을 꾸려가는 듯 보이지만 내면은 많이 다르다. 3국이 모두 독립 왕국이었으나 19세기 후반 프랑스의 식민 통치로 하나가 되었다가 2차대전 후 제각각 독립했다. 라오스는 그중에도 문호를 가장 늦게 개방한 탓으로 세상에 덜 알려졌지만 그만큼 전통 생활양식과 문화

유적의 훼손이 적음은 물론 바가지 요금이나 거리에서의 아이들 구걸 행위도 아직은 보이지 않아 좋다.

물론 라오스는 캄보디아의 앙코르 와트나 베트남의 하롱베이 같은 유명 관광지는 없다. 하지만 인공이 가지지 않은 자연과 여행자에게 친절하고 편히 대해 주는 순박한 인심이 마음을 편하게 한다. 그래서 "베트남에 가면 오토바이를 보고, 캄보디아에선 돌조각을 보며, 라오스에 오면 사람을 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가 보다.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의 젓줄인 메콩강변엔 우리 자본과 기술로 선물한 아누봉 공원이 있다. 시민들의 일급 휴식처이기도 하지만 이 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볼거리 1위라는 게 '따봉! 코리아다. 그 중앙에 찬란했던 옛 란상 왕국의 마지막 왕인 '아누봉 동상'이 있는데 왕은 메콩강 건너 태국을 향해 오른손을 내밀고 있다. 누가 봐도 꼭 악수

를 청하는 자세인데 왜 하필 그런 모습일까. 아직도 두 나라 사이에 악수할 일이 남아 있던 말인가.

앙코르와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는 자그마치 남북으로 1.3km에 동서 길이 1.5km인 피라미드형 석조물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다. 앙코르는 왕도王都요, 와트는 사원寺院이라는 바로 그곳. 고대 크메르인의 예술과 기술이 우주관과 종교관으로 승화돼 건축물 하나하나에서 그들의 뉘트로 거듭나고 있어 속 깊게 들여다봐야 할 대목이다.

앙코르는 제국이 전성기를 누리던 12세기경, 수리아바르만 2세가 건축한 사원이었으나 왕조의 몰락과 함께 6백여 년 동안 밀림 속에 묻혀 있던 것을 1860년 프랑스 탐험가 앙리 무오가 발견해 뉘므로써 세상에 다시 태어났다. 앙코르와트 북쪽에는

봄, 들판에서 나물 뜯는 행복

글 • 권오분

수도였던 앙코르 톰도 있어 성 밖까지 합치면 백만 명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거대 도시의 불교 건축물을 사람들은 '크메르인의 미소라 부르기도 한다. 지나간 역사는 다가올 미래의 나침반이라고도 했다.

관광觀光과 여행旅行과 휴양休養은 그 목적과 행동이 조금씩 다르다. 동남아라도 주마간산이 통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한국 관광팀 중에 여행엔 흥미를 잃은 채 지친 얼굴로 땀을 흘리고 계신 어르신을 보면 딱하기 그지없다. 해외여행이 자유스러워진 요즘 혹여나 캠페인성 관광 상품이 '효도 관광'이란 명분으로 자식된 도리를 다하라고 은근히 부추겨 밀어낸 건 아닌지 궁금하다.

꼭, 부모님을 효孝 관광으로 모시

고 싶다면 가족이 한 분쯤 동반했으면 한다. 현지 가이드는 짜인 일정을 진행하는 게 책무이지 개인 보호자는 결코 아니다. 어르신들은 개개인의 성품 차이도 클뿐 아니라 날씨, 시차, 잠자리, 식성, 건강 등 해외라는 특수성과 의외성이 국내 여행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족 동반 없이 '용돈' 드리고 "잘 다녀오세요." 하는 것으로 효도를 다했다 할 수는 없다. 효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 필수이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족과 함께 오순도순 여행 한번 해 봤으면 원이 없겠다." 라고들 하신다는데 우물쭈물 미루다가 영영 기회를 놓치고 나면 자식으로서 그 회한悔恨이 무량無量할 것 같아서이다.

강인철 • 충남 금산에서 태어나 「에세이21」 가을호로 등단했고, 현재 문화유산국민신탁 홍보대사, 서울시교육청 재능기부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5부자 라이브 인 USA》(이름이 뭐 갈래) 등이 있다.

봄이라고는 하지만 3월은 아직 겨울의 그림자가 땅 위에 남아 있는 상태다. 그러나 땅속은 어떠한가! 어찌 보면 땅속에서 풀들은 겨우내 봄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한 겨울에도 땅을 파 보면 새싹들이 빠르게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나는 봄이 되면 산으로 들로 나물을 뜯으러 다녔다. 봄의 살랑거리는 기운을 느끼며 겨우내 얼었던 땅을 뚫고 나오는 그네들의 강인한 생명력을 느끼고 싶었기 때문이다. 경동시장에 가면 2천 원어치만 사도 온 식구가 실컷 먹을 수 있는데도 나는 차비 들고 시간 들고 쌀쌀한 봄바람에 손을 호호 불면서 나물을 뜯

으러 가곤 한다. 시어머님께서 살아 계실 때는 보온병에 도시락을 준비해서 금곡이나 마석 쪽으로 가는 버스를 탔으니, 봄 내음을 맡게 해 드린다고 어머님을 고생시킨 꼴이다. 전에는 그런 일들이 효도인 줄 알았는데 내가 어머님 나이가 되어 보니 죄송한 생각이 든다. 얼마나 귀찮고 힘이 드셨을까...

3월, 이른 봄. 아직 산그늘엔 흰 눈이 채 녹질 못하고 있는데도 어린 나는 친구들과 썸바귀를 캐러 다니곤 했다. 장갑은 물론이고 따뜻한 목도리도 두르지 못하고 들판에 쪼그리고 앉아서 나물을 캐노라면, 허리춤 오른 찬바람이 기어들어도 등에서 봄별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었다.

봄나물이라야 얼어 죽지 않고 겨울을 견뎌낸 냉이와 어떤 풀보다 먼저 붉은 싹을 황토밭 위로 뾰족하게 밀어내는 씩바귀 그리고 솜털이 보송보송한 모란꽃처럼 생긴 꽃다지와 양지바른 풀숲에 겨우 뾰얀 잎을 내민 썩이 조금씩 있을 뿐이었다. 운이 좋으면 뿌리가 콩알만 한 달래도 캘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씩바귀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나물이고 곁으로 싹이 조그맣게 보이지 않지만 호미를 깊이 대고 캐어 보면 노르스름한 뿌리가 옆으로 꽤 많이 뻗어 있어서 씩바귀를 캘 때마다 황재하는 기분이었다. 어려서는 쓴맛이 싫어서 어른들은 쓰디쓴 나물을 왜 먹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내가 제일 좋아하는 봄나물이 씩바귀인 걸 보면 나이가 들어가는 게 느껴진다.

씩바귀는 살짝 데쳐서 새콤달콤하게 고추장에 무치면 달콤 쌉싸래한 맛이 겨우내 입맛을 잃었던 노인들의 입맛을 찾는 데는 최고라고 한다. 이

보다 더 좋은 보약이 어디 있겠는가. 심장의 기능이 좋지 않으면 쓴 나물을 좋아하고 그 쓴 나물이 심장의 기능을 보하는 약이 된다니 자연의 섭리는 오묘하고 신비롭기만 하다. 요즘은 나물 캐러 가는 일도 도시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기에 재래시장에 들러 씩바귀나 냉이를 사서 노인이 계시는 집에 갈 때 선물로 사 가면 아마도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을 듯싶다.

냉이는 월년초여서 겨울을 견디는 라 긴 뿌리를 땅에 박고 추위를 이겨내는 강한 풀이다. 추위를 이기는 힘이 강해서인지 냉이는 간을 보하는 약으로도 쓰는 흔한 봄나물이다. 캐기가 조금 힘이 들지만 뿌리에 붙은 흙을 털어 낼 때 냉이는 어느 약초나 꽃향기보다 독특하고 맛있는 향이 난다. 워낙 냉이 냄새를 좋아해서 뿌리를 뽑아 올릴 때마다 냉이를 코 끝에 대고 숨을 크게 들이쉬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눈을 감고 쿵쿵 거린다. 걸핏하면 콧등에 흙을 묻히

고 돌아다니니, 어머니는 마냥 어린애 같은 내가 귀여우셨는지 못마땅하셨는지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는 하셨다. 봄이 되면 나는 그런 어머니가 너무도 그리워진다.

깨끗하게 씻은 냉이를 날 콩가루를 문혀서 설설 끓는 된장 국물에 넣고서 파를 송송 썰어 넣고 달래 한 뿌리를 넣어 끓이면, 냉이국은 온 식구들이 좋아하는 나만의 된장국이 된다. 냉이국에 밥을 말고 겨우내 곰삭아 익은 신 김치를 한쪽 엽어서 먹으면 아무리 기운 없고 입맛이 없던 사람도 생기가 돌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출근길이 늦었다고 아침을 못 먹겠다던 아들이 냉이 향기 때문에 지각할 결심으로 아침밥을 먹는다면 너스레를 떠는 게 싫지 않다.

봄나물의 강인한 생명력이 사람에게

게도 전해졌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해지는 지금이다. 대부분의 풀과 나무는 추운 겨울에는 마치 죽은 것처럼 누런빛을 띠거나 앙상한 가지로 남아 있다가 따뜻한 봄이 되어야 다시 그 생명을 불러온다. 하지만 봄나물들은 얼었던 땅, 그 안에서 그들은 뿌리를 내리고 아직 얼음이 녹지 않은 땅을 힘 있게 뚫고 올라온다. 그 어느 풀들보다도 먼저... 사람도 그랬으면 한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래서 너무나 현실이 두렵더라도 죽은 사람처럼 모든 희망과 용기를 놓아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당신은 살아 있기 때문에... 당신이 가진 생명력으로 조용히 현실에 맞서 준비하다가 어두운 현실이 밝아올 때쯤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나 세상 속으로 뛰어나오길 바란다. 봄나물처럼...

권오분 • 동네에서 밥 퍼주는 아줌마로 소문난 권오분님은 과거 「맑고 향기롭게」 소식지에 오랫동안 글을 연재했으며,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글들을 주로 써왔다. <제비꽃 편지> <꽃으로 여는 세상> <아름다운 우리 숲 찾아가기>(공저) 등이 있다.

소통을 방해하는 말 - 2

글 • 고현희(공감대화 개발원장)

여러분은 게으르신가요? 게으르
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혹시
누구하고 비교해서 게으르신가요?

여러분은 게으르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누
구하고 비교해서 게으르지 않으신가
요?

위 질문에 본인의 행동을 보고 생
각한 것을 적으셨다면 공감 대화의
의도와 일치합니다.

‘나는 게으르다고 생각합니다. 왜
냐하면, 바지를 한 계절 내내 입고
빨기 때문입니다.’라는 답은 내 행동
에 대해 게으르다고 생각한 것입니
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사회 통
념상 혹은 도덕주의적으로 판단하

여 게으르거나, 게으르지 않다고 답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
교하였다면 그 사람은 가장 표준의
사람인가요? 사회 통념은 각각 사회
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도덕주의
적 잣대도 시대가 다르면 달라집니
다. 게으르다는 것은 나쁜 것일까요?
꼭 고쳐야 하는 것일까요? 삶에서는
부지런함이 필요할 때도 있고, 게으
름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게
으름도, 부지런함도 스스로 선택하
며 살아가면 되겠지요? 영국의 철학
자 버틀랜드 러셀은 ‘행복해지려면
게을러지라.’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너는 게을러서 정리를 못 하는구
나.’라고 한다면 그 말은 씨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상대를 판단하는 말은

그 상황을 고착화시킬 수 있습니다.
판단의 말 ‘너는 게으르구나.’를 듣고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라고 그런 삶
을 살아버릴 수 있고, ‘너는 무척 부
지런하구나.’를 듣고 부지런해지려고
부단히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
면 부지런하다는 판단은 긍정적 효
과를 내는 대화일까요? 그럴 수 있
습니다만 타인의 판단에 맞추기 위
해서 행동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생
각하고, 결정하여 삶을 꾸려 나가는
‘자력’의 삶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가끔 타인의 판단에 맞추기
위하여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언젠가는 힘든 시기를 겪으며 스스
로의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도덕주의적 판단의 말을 공
감 대화로 바꾸면, ‘내가 네 책상 위
를 보니까(상황) 정신이 없네.(느낌)
물건들이 제자리에 놓여 책상이 깨
끗하기를 바라는데,(바람) 너는 어떻
게 생각하니?(부탁)’라고 합니다.

어떤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여 말
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보이는 대로
말하면서 그때 느낌을 말하세요. 원
하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상대
의 의견을 물어본다면 듣는 사람이
자력을 만들어 행동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공감 대화를 하면 서
로 이해하게 되고, 마음을 나누게 됩
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공감 대화로 소통하는 시간
이 쌓여가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친구 ‘가’를 만났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만났던 친구 ‘나’에 대해서 이렇
게 말합니다.

‘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마구 말해.’라고 화난 듯 판단의 말
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실
까요? 이때 생길 수 있는 느낌 3가지
를 적어보세요.

느낌 1 _____

느낌 2 _____

느낌 3 _____

지난번에 친구 '가', 친구 '나와 함께 만났을 때 친구 '나는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마구 말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친구 '나가 제일 잘 알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자신의 잣대로 판단한 친구 '가의 말을 듣고 느낌을 말한 후 원하는 것을 말해보자면,

'내가 네 말을 들으니 좀 불편하네. 친구 '나가 한 말을 판단하기보다 느낌이 어떤지, 어떻게 말하기를 바라는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생각은 어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 '가는 이 말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겠지요?

친구 '가의 말을 듣고 불편하거나, 답답하지 않고 시원하게 느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네 말을 들으니 속이 시원하

다. 지난번 친구 '나의 말을 들으며 나도 엄청 불편했어.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조심해서 말해주기를 바랐거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편안해지는 말을 하기로 할까?'

이번 글의 앞부분에 '누구하고 비교해서라고 질문을 적었습니다. 비교는 한 지점을 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다른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 사람을 기준점에 놓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은 모두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 비교를 당연한 것처럼 하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지구 위 약 70억 인구가 모두 똑같다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모든 남자는 같은 생김새와 말투와 행동을 하고, 모든 여자도 그러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행히도 지구에서는 쌍둥이도 다릅니다. 그 다름으로 인하여 인간은 존엄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릅니

다. 달라서 각각 다른 행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른 그대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것입니다.

새봄이 오고 있습니다. 어느 해 이

즈음에 진영각에 들어서며 '아, 매화 향기...'라고 놀랐었습니다. 진영각의 매화가 피었을까요? 매화 향기처럼 여러분의 향기도 퍼져나가고 있나요?

제2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

법정 스님 글의 문학적 가치를 되새기고 초등학교 예술 창작 능력을 고취시키고자 (사)맑고 향기롭게에서 '제2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어린이날 개최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이 법정 스님의 맑고 향기롭게 정신을 보다 널리 공유하는 장이 되길 바라며 초등학교 자녀를 둔 신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접수 안내

- 접수 기간 : 2018.03.19(월)~04.22(일)
- 참가 대상 : 전국 초등학교생
- 접수 인원 : 선착순 150명
- 접수 방법 : 참가신청서를 이메일로 접수
- 접수 이메일 : clean94@hanmail.net

대회 안내

- 일시 : 2018. 05. 05(토) 13:00~18:00
- 장소 : 서울 성북구 성북동 길상사 내
- 참가 부분 : 운문·산문
- 준비물 : 필기도구(연필, 지우개), 원고지받침대, 뚝자리, 물

자세한 내용 및 참가신청서는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clean94.or.kr / Tel. 02.741-4696

2018년 맑고 향기롭게 강연회(일요특강) ‘인권’에 대해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나의 삶에 어떻게 닿아있을까 궁금하시지요?

시민모임 (사)맑고 향기롭게에서는 길상사와 공동으로 2018년 한 해 동안 '인권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입니다.

우리는 모두 존엄합니다.

인간의 가치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무엇인가를 실행해야 한다는 의미의 조항입니다.

그렇다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

이 강의를 통하여,

우리의 인권은 지금 어디쯤 머물러 있는지 또 어디쯤 멈춰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삶 속에 녹아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기획한 강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강연회 일정 안내		
강연 일자	초청 강사	강연 주제
3월 25일	양정훈	인권일반 1
4월 22일	양정훈	인권일반 2
4월 29일	조혜욱	아동&청소년 인권 1
5월 27일	조혜욱	아동&청소년 인권 2
6월 24일	서미화	자원 활동과 인권
7월 22일	고현희	장애 인권
7월 29일	유일영	여성 인권 (성 평등)
8월 26일	송재영	인권과 평화
10월 28일	김숙희	노동 인권
11월 25일	모천석	가정 인권
※ 강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월 25일(넷째 일) 초청 강사

양정훈 작가 / 인권교육활동가

대학에서 광고홍보학을 전공한 후 홈쇼핑 MD, 국제자원봉사 NGO 팀장으로 재직했다. 이후 유럽에서 인권을 공부했고,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는 대통령 자문위원회 등에서 일했다. '여행 마법사'라는 이름으로 2008년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고, 전작으로 <모든 청춘은 같은 곳으로 떠난다>, <그리움은 모두 북유럽에서 왔다>, <북유럽은 행복하다> 등이 있습니다.

- (현) ARTRAVEL 편집장
- 영국 로햄튼대학교 사회대학원 인권정책학 석사
- 노르웨이 트롬쇠대학교 문화인류대학원 인권이행학 석사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사는 일에 뜻을 함께해주세요

시민모임「맑고 향기롭게」의 활동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본 모임 홈페이지 회원제안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그리고 회원님의 변경된 정보(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나 직접 발간하신 저서, 글,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 등이 있으면 사무국으로 방문 또는 전화, 편지, 전자 우편으로 알려주세요. 또한, 청정한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더욱 맑고 향기롭게 가꿀 수 있는 여러 활동이나 참신한 아이디어 공유해주실 분과의 만남을 기다립니다.

맑고 향기롭게 정기 자원활동 봉사자 모집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사)맑고 향기롭게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가정을 위해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반찬 2가지를 나누고 3월에서 11월 둘째 목요일에는 배추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농협상품권과 명절에는 생필품을 나누고 연말에는 약 500가구에 김장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 전화 말벗 자원활동

전화 말벗 자원활동은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후원 대상자 중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

정에 정기적인 전화 통화를 하여 일상적인 안부와 건강, 영양 상태, 생활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더불어 대상자의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활동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 활동은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민요, 국악 등 놀이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매월 둘째 토요일 오전 8시 30분,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에 모여 이동합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활동

서울 종로구 안국역 옆에 위치한 어르신 이용시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매일 2,000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께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으며, 맑고 향기롭게 자원봉사팀은 매주 월요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오전 10시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식당으로 오셔서 맑고 향기롭게 자원봉사팀을 찾으시면 됩니다.

* 아름다운 만남 - 청소년 자원활동

‘아름다운 만남’ 자원활동은 노인 자살예

방 캠페인 ‘아름다운 마무리’의 연장선상으로, 본 모임에서 말반찬이나 전화 말벗 등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집을 청소년 봉사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정서적 지지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관심 있는 청소년 봉사자를 수시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 의류 리폼 자원활동 봉사자 모집

맑고 향기롭게 의류리폼 자원활동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환경운동으로 안 입고, 못 입는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길상사 경내에 개점한 ‘맑고 향기로운 가게’를 통해 판매하고, 수익금은 세상 사업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길상사내 세계일화실에서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의류리폼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하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혹은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CMS후원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

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일시 후원

뜻 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을 받아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 본모임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 중에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세요.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 번호로 은행에 가지지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3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 : 5일(월)/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활동 : 매주 목, 금요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김치 나눔 자원활동 : 3월~11월 둘째 목요일(8일)/맑고 향기롭게 반찬 나눔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물어도 괜찮은 옷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 : 매주 월요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활동/수시 모집 중/자원 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진인 노인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 마당 정기 자원활동 : 둘째 토요일(10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전화 말벗 봉사자 정기모임 : 넷째 화요일(27일)/오후 1시 30분/다라니 다원
- 아름다운 만남(청소년과 독거어르신과의 만남) : 셋째, 넷째 토요일(17, 24일)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의류 재활용 봉사모임 : 매주 화요일/오후 12시/세계일화실
-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 : 짝수 달 매주 수요일/오후 1시 30분/세계일화실

<정기 재정 후원>

- 시각장애인 호송 단체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 '월곡 청소년 센터' 위탁운영 및 물품 후원
- 서울 지방 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 제주도 극빈 어르신 정기 물품 지원
- 자혜원(아동 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후원계좌안내 (CMS, 계좌입금)

- ❖ 일반사업 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KEB하나은행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 ❖ 결식아웃 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 장학금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 *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02.741-4696 / 홈페이지 : www.clean94.or.kr
- 이메일 : clean94@hanmail.net / 주소 : 서울 성북구 선잠로5길 68 길상사내



대구모임 (053-753-8883)

- 대구모임 2층, 3층을 새롭게 단장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층은 회원 모임 공간과 사무실로 3층은 법정스님 자료와 도서, 대중강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홀로 어르신 말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음식조리활동(10시~13시), 배달 및 말벗활동(9시~2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활동 : 매일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 식사도움, 빨래정리, 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 : 매일 첫째 화요일 11시
- 법정스님 책임기 모임 : 매일 둘째, 넷째 금요일 / 법정스님 법문집 읽기, 법문영상보기
- 햇살청소년지원사업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청소년 물품 및 정서지원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수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 설거지봉사 :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 첫마음(소식지)발송 : 매월 초
* 사육 관리 및 청소 : 월중 수시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말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일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일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일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일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오후 1시 30분/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일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위안부 할머니 지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지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일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오전9시 30분~오후 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김치 담그기/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산수동에 지역 회원들의 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맑고 향기로운 가게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매월 둘째 수요일/사무국
- **노래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사찰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천연 세숫비누, 빨랫비누, 천연 화장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부산모임 (051-898-2672~3)

- **사회복지시설 정기 활동**
 - 장애인 이동목욕활동 : 매주 수요일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 매주 목요일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 매월 1째, 3째주 화요일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 매주 금요일
 - 용두산 공원 무료급식 : 매월 둘째 수요일, 셋째 목요일, 넷째 금요일, 넷째 토요일.
 - 해운대 사랑의 이동 밥차 무료급식 : 매월 둘째 목요일
 - 지역정화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 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월 셋째 화요일
 - 부산진구 독거노인 말벗봉사 : 매주 수요일
 - 연화원 대청소 : 매주 목요일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홀로어르신 말벗봉사 : 매주 금요일
 - **불우이웃 돕기 & 나눔 활동**
 - 명절, 연말 불우이웃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청소년 가장장학금 지원 및 의료, 생계비 지원
 - 홀몸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 **부산시민공원 정화활동** : 매월 2, 3주 토요일
 - **숲기행 자연보호활동** : 매월 4주 월요일
- 후원 : 우리은행 206-07-151128 / 이상오

대구, 경남, 광주모임은 지부로登記되어 있으며, 부산모임은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법정스님을 그리는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

- 일시 : 3월 11일(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설법전

법정스님 8주기 추모법회

- 일시 : 3월 13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설법전

금강경 독송 천일기도

- 일시 : 매일 오후 2시
- 장소 : 극락전
- 동참금 : 5만원 / 각 회차(100일)
- 설판도 받고 있으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8회차 기도가 1월 10일(수)에 입재되었으므로, 수시로 접수합니다.

동안거 해제 및 90일 관음기도 회향

- 회향 : 3월 2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춘계관음기도 입재

- 입재 : 3월 3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천수다라니 33독 기도

- 일시 : 3월 3일(토) 오후 6~8시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속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지장재일

- 일시 : 3월 5일(월)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 3월 10일(토) 오후 8시 00분 ~ 3월 11일(일) 새벽 3시 40분
- 장소 : 극락전

관음재일

- 일시 : 3월 11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초하루기도 및 법회

- 일시 : 3월 17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3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동안거 해제	3월 2일(금)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보름기도	3월 2일(금)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춘계관음기도 입재	3월 3일(토)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다라니기도	3월 3일(토)	저녁 6시	극락전
지장재일	3월 5일(월)	오전 9시 50분	지장전
삼천배 철야정진	3월 10일(토)	오후 8시	극락전
관음재일	3월 11일(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법정스님 8주기 추모법회	3월 13일(화)	오전 11시	설법전
초하루법회	3월 17일(토)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 오전 9시 50분 / 저녁 7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40분 / 오전 9시 50분 / 저녁 6시	지장전
금강경독송 천일기도	매 일	오후 2시	극락전
일요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설법전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중고등 법회실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2018년 ‘맑고 향기롭게·길상화 장학생’ 추천받습니다.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에서는 뛰어난 성적이 아니더라도
성실하고 밝은 심성을 가진 일반고, 특성화고 학생과 한국 과학기술영재 발굴을
위한 목적으로 과학고 학생을 추천받습니다.

- 장학 대상 : 일반고, 특성화고, 과학고 학생 (50명 내외)
- 장학 기간 : 1년 (각 분기마다 학교 발전기금 계좌로 입금됨)
- 장학 내용 : 수업료, 운영지원비 전액
- 추천자 : 회원, 지부 사무국, 현직 교사, 사회복지사에 한함

• 구비서류

① 추천서

- 추천서는 본모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추천자 성명, 학생 정보 외 추천 사유 기재
- 학교 장학, 행정 담당자의 확인 필수

② 학생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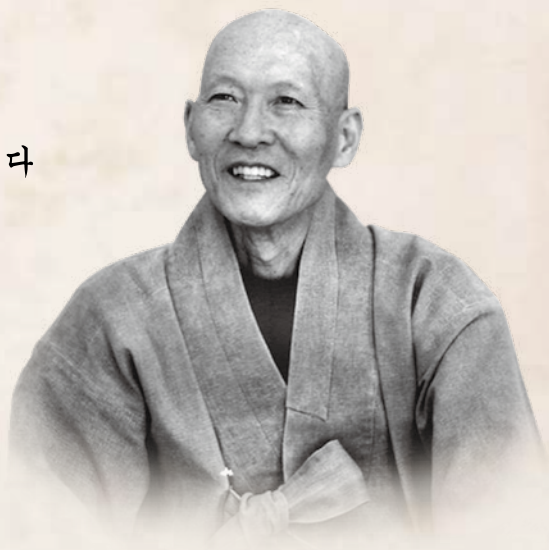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성적증명서(신입생의 경우 중학교 3학년 성적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기타 경제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접수 마감 : 2018년 3월 16일(금) 우편 소인까지
- 선정 발표 : 2018년 4월 4일(수) 개별 통지 및 학교로 연락
- 문의처 : 02)741-4696(총무팀)
-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www.clean94.or.kr) 공지 참조
- 장학금 후원계좌 :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 / 맑고 향기롭게



살아 있는
모든 이웃들이 다
행복하라,
태평하라,
안락하라.



법정 스님을 그리는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3월 11일(일) 오후 1시 30분 / 설법전

출연 : 작은평화(어린이 합창단) / 꽃들 힐링 시 낭송회 / 국악가수 권미희 / 노래하는 박창근

법정 스님 8주기 추모법회

3월 13일(화) 오전 11시 / 설법전

맑고 향기롭게  **솔** **祥** **총**